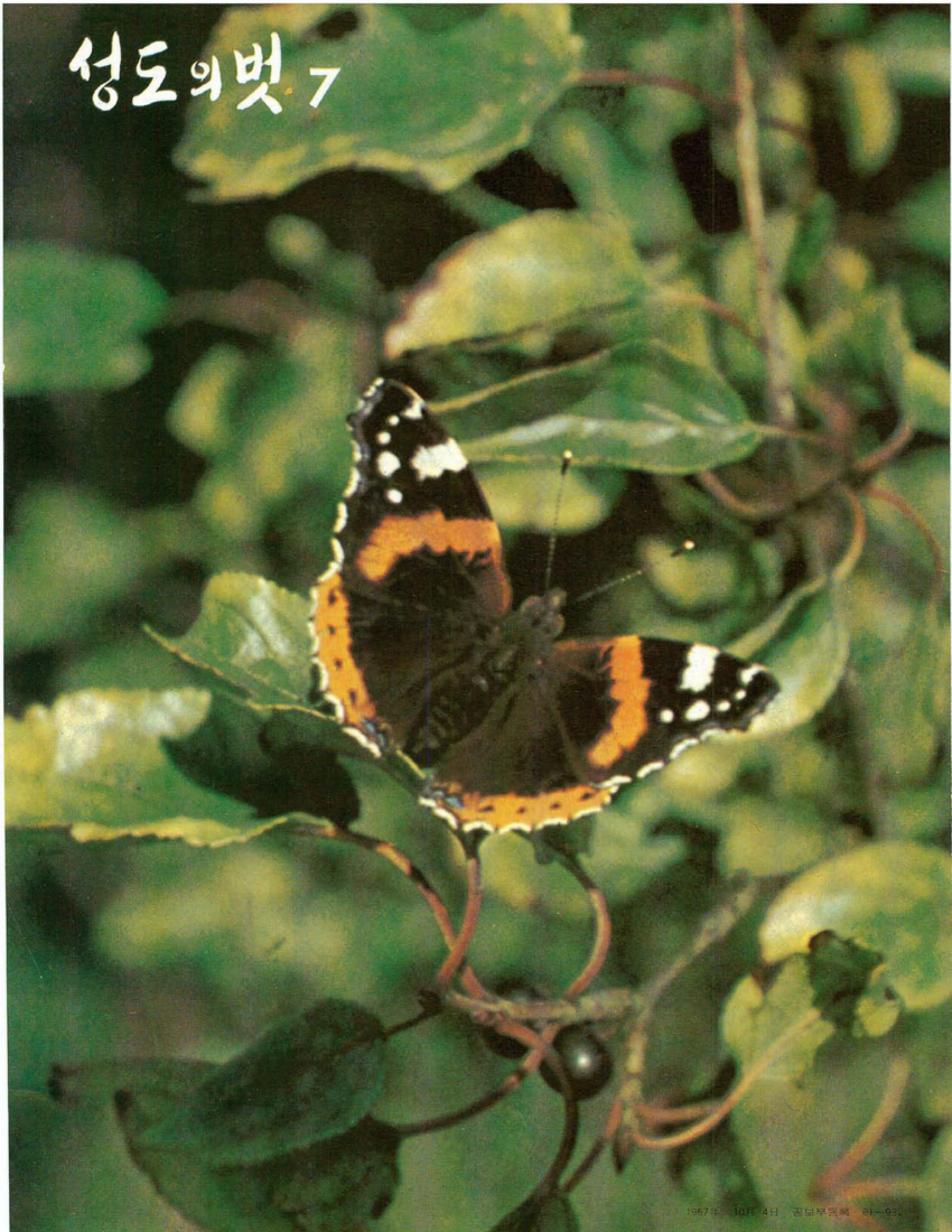


성도의 벗 7





영감의 멧세지

멜버트 엘. 스태플리
(12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 그의 무한한 지혜와 사려로서 우리들이 하늘 나라의 보좌를 일별하고 앞으로 거처하게 될 곳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통찰력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미래의 끝없는 생활에서 거처하게 될 영원한 가정과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주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신앙심이 돈독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 즉 영광의 가장 높은 자리를 쟁취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된 상태를 쟁취할 수 있느냐에 관한 거룩한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과 관계 깊은 것들 간단히 예를들면 기도, 겸손, 진정한 봉사, 친절, 덕행, 순결,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의 순종, 거짓없는 사랑, 고결한 마음, 성스럽고 거룩한 것 등에 종사함, 그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획득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는 동안에는 이상의 모든 것들을 결코 다 알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함은 영생의 바탕을 형성할 때대를 현명하게 쌓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4 권 제 7 호

순 서

1968년 7월호

권두언 : 단장의 설교 대관장 데이비드 오. 벅케이	1
레이맨인의 시대 라인 엠 라운디	3
바다 갈매기 기념비	9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존경에 관하여 존 에이취. 반덴빅	10
상호 부조회 : 영광스런 여인의 사명 헤롤드 비. 리	12
주일학교 : 경전을 상고하자 로웰 엘. 베니온	15
리하이의 들 리차드 오. 코완	17
청소년편 : 비극이나 운명이나 스펜서 더블유. 킴블	18
상호 향사회 : 전과 후 후로렌스 에스. 자콥슨	22
계보 : 하나님의 자녀	24
선교부장 멧세지 : 한국 성도에게 남기고 가는 말 배 일문, 배 선혜	26
지방대회와 우리소식	27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8년 7월 1일
통권 제36호

발행인 :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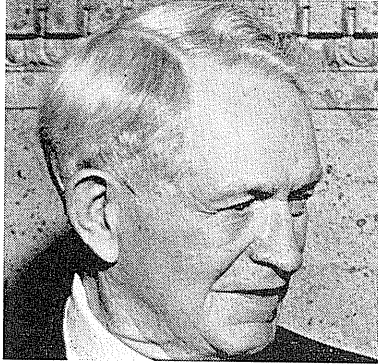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이달의 표지 : 무르익은 여름입니다.
태극 호랑나비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독일의 콘라트 바엘 씨
의 작품 "나비" 입니다.



短章의 說教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최상의 성공과 마음의 만족한 상태를 원한다면, 매일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상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직업으로 택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남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인간이 마음 속에 진실로 믿는 것은 바로 그의 생각이며, 그가 진정한 뜻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입니다.

인간이란 결코 자기들이 세운 이상을 지나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흔히 그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여도 지나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생애 있어서의 유용성, 즐거움, 기쁨, 행복등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름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무엇이래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 모두가 세상의 왕이라 부르는 그분의 인도하에 뭉칠 때, 예수의 도덕적, 영적인 가르침을 이론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친절과 사려깊은 행동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의 원리를 하나로 뭉쳐 고수할 때에만 인간의 마음 속에 불의는 사라지고 참다운 의가 자리잡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써 이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이 자연의 제일 법칙임은 사실이나, 이 법칙은 영의 성장이란 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열정에 자기를 잃을 때, 이는 곧 자신의 영을 노예의 상태로 결박하는 것이며, 육체적인 성향(性向), 열망, 소유를 자신의 탐욕이나 안위 보다 더 높은 목적에 사용하고저 할 때, 그것은 행복하고 유용한 삶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서로 충고하여,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시기는 닥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철저히, 그리고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이 진리를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평화나 자유는 세상을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율법에 순종함은 곧 지상의 삶과 영생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대로 진리는 필연적으로 승리한다고 믿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침례의 물가에서 성약을 맺은 이후로는, 성찬식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으로 생기는 어렵지 않은 원리대로 생활할 때, 여러분은 귀한 사명을 다한 것이며, 하나님은 이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며, 모든 사람이 서로 화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가 유혹에 대항해서 싸울 힘과, 정신적이며,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인간에게 이 세상과 앞으로 닥칠 세상에서의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지극히 합리적인 책임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이나 부름에,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보배인 시온의 자녀를 맡아 키우는 아버지로서 충실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불의에 굴복하면서 개성의 발전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힘은 다만 그에 대항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타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 회원에 있어서의 결혼은 성스러운 의식이며,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손으로 수행될 때, 인간 발전의 가장 안전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결혼이란 필요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맺어진 관계를 종식 시키거나, 또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서로의 관계를 청산할 수도 없는 의식입니다.

가정을 순수하고 합당하게 지킬 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활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인 환경,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덕이란 내부에서 샘 솟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각과 감정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 필연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낳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청년이나 아름다운 소녀라 할지라도,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을 때, 영혼 속에 스스로의 불만을 조성할 때, 그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센 블라스 인디안과 교회가 유대를 갖기 시작한 연조가 벌써 십 수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쿠나인이라고도 불리는 센 블라스 인디안이 미국 군인과 처음 접촉을 하게 된 것은, 이들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로 말을 들여 놓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인디안은 청소부, 요리사 등으로 그곳에 고용되었고, 이 부대에서 선교사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는 15세 이상의 젊은이 수백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워 침례를 받았으며,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에 관하여 물었을 때, 인디안들은 센 블라스 섬에 관하여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기를 파나마의 대서양 연안을 지나서 콜론과 파나마—콜롬비아 경계의 사이에 삼만여 명의 순혈 인디안이 육십여 개의 이상하고도 작은 산호초 섬에 산재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그 섬을 방문할 때까지 장로들은 쿠나 섬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섬사람들이 대단히 친절하고, 호기심을

며, 인디안들과 짧은 생애를 같이 했던 그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하나의 상징을 남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베오르건이 그리스도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만, 아놀드 후리버그가 그린 그리스도의 미대륙 방문에 관한 그림을 보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소리는 “이베오르건!” 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언젠가는 그 섬사람들 사이에 상주할 선교사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계속 그들을 방문하고 가르쳤습니다. 십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후, 오고야말 그날이 와 결국 파나마 정부는 센 블라스 섬사람들을 위한 문호를 개방하고 필요한 서류에

레이맨인의 시대

라인 엠. 라운디

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바 복음의 소식을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대단하여 선교사들이 본토로부터 비행기 편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할 만큼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선교사들은 그 사람들의 농장에서 여러가지 일을 거들어 주었으며, 그들이 저녁에 갖는 부족회의나 대표자 회의에서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은 번역사이자 회원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기와 흡사한 물문경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얘기란 바로 여러 위대한 예언자들에 관한 것들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특별한 예언자는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베오르건이라고 하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되고, 곡물도 심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약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으

히브리인의 코는 레이맨 여인의 코와 흡사하다. 귀걸이는 한쌍에 4만원에 해당한다. 코걸이는 쿠나인의 빠질 수 없는 장신구이다.



조인했습니다. 1965년 9월 파나마에 있는 레이팬 인에게도 회복되리라 고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길이 밝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해 9월에 중남미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새로이 임명된 태디 브레윌튼 선교부장은, 그 여러섬에 선교사가 정착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하여 섬을 특별히 방문하셨습니다. 가장 큰 섬인 우스투푸가 첫 선교사들이 머무를 장소로 선정되었고 브레윌튼 선교부장님은 그 섬의 회의에서 교회의 목적과 소망을 이야기함으로써 장래가 떠나갈듯 한 환영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체 섬을 통하여 선택된 세 사람의 최고 수령가운데 한 사람인 “카키크”란 사람은 일어서서 샌 블라스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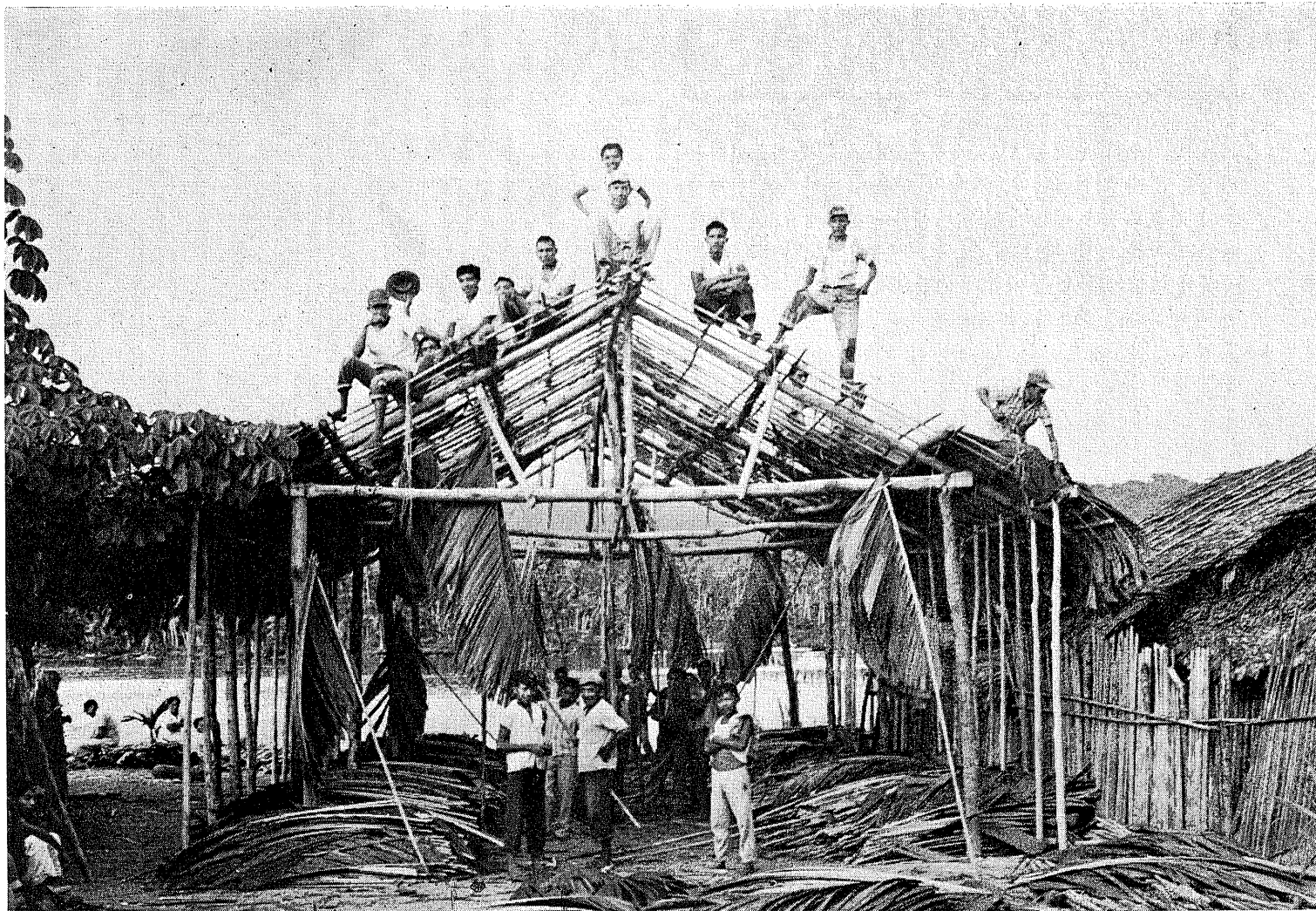
10월 초순에 네명의 선교사, 즉 로이드 베이커 장로, 레슬리 웨브 장로, 데이비드 수먼스 장로 그리고 스티브 헤일 장로 이상 네사람이 우스투푸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곳에 교회를 다시 세우도 좋을 정도의 확실한 성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1월, 브레윌튼 선교부장님은 스티브 헤일과 린 라운디 장로에게 1월중으로 “칼티투풀”섬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칼티 투풀 섬은 비교적 작은 섬이었지만, 섬사람들이

그 섬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1965년 6월에 처음으로 “칼티”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제일인자인 “사필라”족장이 늦게 도착한 것을 나무라면서 작은 섬의 한 번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는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의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칼티에서 항상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나의 동반자 스티브 헤일 장로와 내가 1966년 1월 6일 집을 짓기 위하여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6주동안 살던 집은 “초자” 혹은 “이영”으로 지붕이 된 나무집이었으며, 이것은 파나마의 공화당이 집회장소로 사용하던 집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씨멘트 벽돌로 만든 이층집의 이층을 전세로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선교사 숙소와 조그만 집회장소를 갖추 수 있었습니다.

칼티투풀 사람들은 교회가 그곳에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서, 그곳에 교회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대단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찬식을 열었을 때 참석한 인원은 여섯명이었으나, 다음 주에 참석한 사람의 수효는 82명이었고, 그 후 모든 집회의 평균참석 인원은 75명정도 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향회에는 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살의 무라투푸 사람들이 5일간에 284원을 드려 지은 예배당. 200명이 앉을 수 있는 이곳에는 선교사의 숙소도 마련되어 있다



참석했습니다.

우리들 선교사는 복음을 가르칠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밖에 나가 돌아다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에는 교회에서 출판되는 잡지를 읽기 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왔으며, 그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의 하나는 “우리는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점차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수교의 열매와 성령의 간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66년 2월 4일 교회의 역사는 파나마에서는 처음으로 12명의 젊은 사람들이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쿠나 사람들의 전통적인 전설적인 얘기 가운데는 말일성도들이 믿고 있는 사실과 유사한 점이 꽤 많습니다. 그 인디안들은 그들 민족가운데 그들이 옳게 살아가도록 가르친 예언자들이 많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의 영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며, 예언자의 가르침대로 사는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와 내 동반자는 인디안의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재미있는 쿠나 사람들의 또 다른 신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애가 죽었는데 습관대로 가족들은 강기슭에 있는 묘지에 가서 밥과 옥수수로 만든 음료, 즉 “취화”를 마련하여 조의를 표하려 온 친구와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우리는 묘를 비바람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이영”으로 엮어 만든 수십 개의 오두막 집들이 있는 장례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아이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 오두막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남자들은 그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여 참석할 손님을 맞을 준비에 바빴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아이를 뺨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는 그물로 짜서 만든 침대와 같은 곳에 누여져 있었고, 그의 몸은 길다란 형질로 휩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한 어린 아이를 얼마나 계속 생각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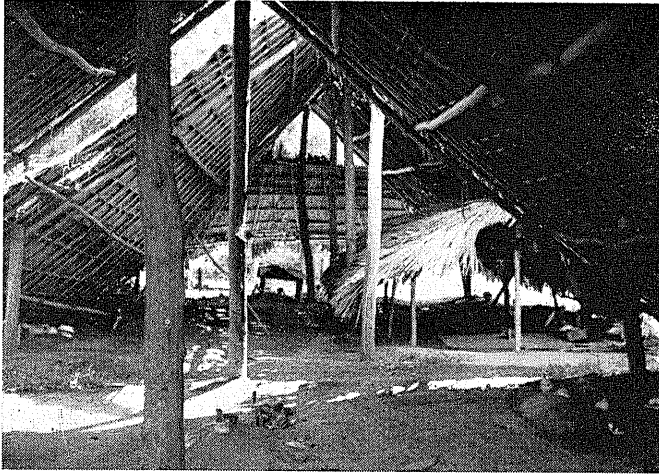
나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보여준 정신적인 태도에 경탄을 금치못했습니다. 그 죽은 어린 소녀의 가족과 부모들까지도 슬퍼하는 기색은 없었으며, 오히려 기뻐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도 미소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슬픈 표정은 전혀 없이 반면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태껏 장례식에 참석해 본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나는 통역하는 루이스토 스토클 씨에게 인디안들은 죽음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멋진 답변이란 “인디안의 신앙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죽게 되면

하등의 심판이나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 직접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어린아이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모르고 한 행위로 정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야 말로 참 재미있는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의 죽음 앞에서도 그의 가족들은 슬퍼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녀가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와같은 이야기는 물론경에 있는 많은 사건을 생각해 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광경을 보고 니파이 백성들은 사랑하는 자기편 군대들이 죽은 것으로 오히려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 의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리라는 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행동에 책임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을 받는다는 물몬의 가르침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신앙들은 센블라스 사람들에게 진실로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우리와 같은 복음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6년 4월 하순경에 우리는 “아쿠아투푸” 혹은 바위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힐라(족장)가 물몬 교회에 대하여 듣고는 선교사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동반자 그레고리 러빈슨 장로와 나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이 모터카누(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힐라는 왜 당신은 이곳에 왔느냐는 이유를 물으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요청에 답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러한 부탁을 한 적도 없으며, 아마도 어떤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인즉 그는 미국사람이나 라틴계 사람들과는 접촉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가져오게 된 여러가지 변화를 보아 왔으며, 교육을 받은 유식한 사람들과는 어떤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사힐라로 있었던 동안, 그리고 현재나 미래에도 어떠한 외계의 영향이 자기 민족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아들은 점을 그에게 사과하고, 만약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면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으나, 단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들이 제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루 여행을 즐기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이와같은 부탁을 수락했으며, 그에게도 물몬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약 170명의 원주민들이 우리들의 얘기를 듣기 위하여 회장에 모였으며, 우리는 우리의 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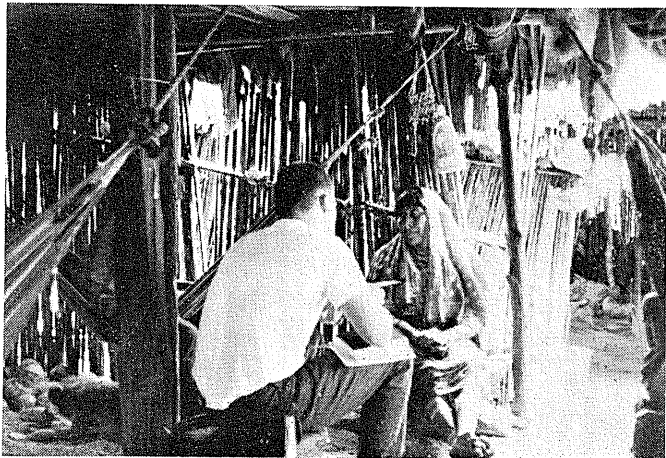


강 뚝에 설치된 쿠나의 장지 죽은 사람은 적은 오두막
집같은 이곳에 안치되어 비를 피하게 되어 있다.



쿠나의 두 여인. 짧은 머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
징이다. 배경으로 보이는 우수투푸 섬은 인구 2700명의
가장 큰 섬이다.

선교사가 특유의 초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이 많다.



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인디안들이 한 번 가졌던, 그 귀중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옛날 조상들은 그런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다만 구전되어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디안들이 이런 얘기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는 하였으며, 각각 계속되는 세대마다 이 완전한 가르침의 부분들을 상실하거나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수 세기동안 계속되어 오늘날에는 다른 종족들이 그들 조상의 독특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경의 역사와 인디안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옛날 인디안의 예언자에 관하여 얘기를 하였을 때, 그 마을에 대변인 되는 사람이 한참동안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 젊은 외국 사람이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오늘 그들이 여기에 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얘기와 설명을 결론지으면서 우리는 그 족장에게 이 인디안의 역사가 기록된 책을 갖고 싶어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당신이 설명한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을 주신다면 그 외에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는 모든 외부 사람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끝맺음 할 때, 그 사힐라는 그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하도록 언제쯤 다시와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섬을 떠나기 전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그후 그는 직접 그 섬을 구경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몇일 후, 그 사힐라는 칼티투풀에 사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전하여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을 잊지 않게 얘기해 달라는 부탁과,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 채의 집을 짓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첨부해 알려왔습니다. 족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며,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그의 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노력 가운데 우리의 큰 성공은 더 많은 섬 위에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둘째로 큰 섬인 에일리겐디에 새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홀로이드 바움 장로가 내 동반자로 도착했으며, 이틀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 의회에 가서 그 섬에다 지부를 설립하는데 허락해줄 것을 부탁 했습니다. 이 요청은 백 퍼센트의 찬성으로 승락되었고, 한 사람도 물론 교회가 들어 온다는데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정리를 끝낸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주일 후에 지부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겠노라고 전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가 도착했을 때, 사힐라는 물론이 이 섬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존해 있어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던 만 교회가, 물론 교회를 비방하고 그들의 생활방법을 그릇되게 얘기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반대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물론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날이 있으리라 는 희망을 안고 그 섬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바움 장로와 나는 집도 없이 떠났으나, 곧 센 블라스 군도의 최남단의 부근에 있는 약 일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넓은 사살디 무라투푸라는 섬의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우수투푸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그 섬에 대하여 이것 저것을 알아 보았으며, 그때 먼저번 사자에 의하여 사람들은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우리가 정착할려는 뜻을 쉽사리 받아 주었습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 되는 사람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부를 세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러 그 곳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자 우리들의 임시 숙소로 자기들의 자그마한 오두막집 반을 친절하게 빌려주는 두 인디안 학교 선생들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도착하자 그 마을에서는 그들의 극장을 우리의 숙소로 빌려 주었으며, 영화는 사용하지 않고 있던 성당을 대신 이용하여 상영하였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우리에게 적합한 숙소와 예배당을 짓는 준비를 완료하고, 결국 동네 모든 사람이 다 협력하여 흰 등나무와 종려나무로서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일은 5일 걸렸으며, 건축자재를 위해서 교회가 부담한 금액은 1불 5전(284원)이었습니다.

비록 회원의 숫자는 적어도 매일 거듭되는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효는 관심 있는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항상 늘어 갔습니다. 주일예배 때에는 거의 130명이, 그리고 합창연습 때는 150여명이 참석했고, 상호 향사회 때에는 200여명이 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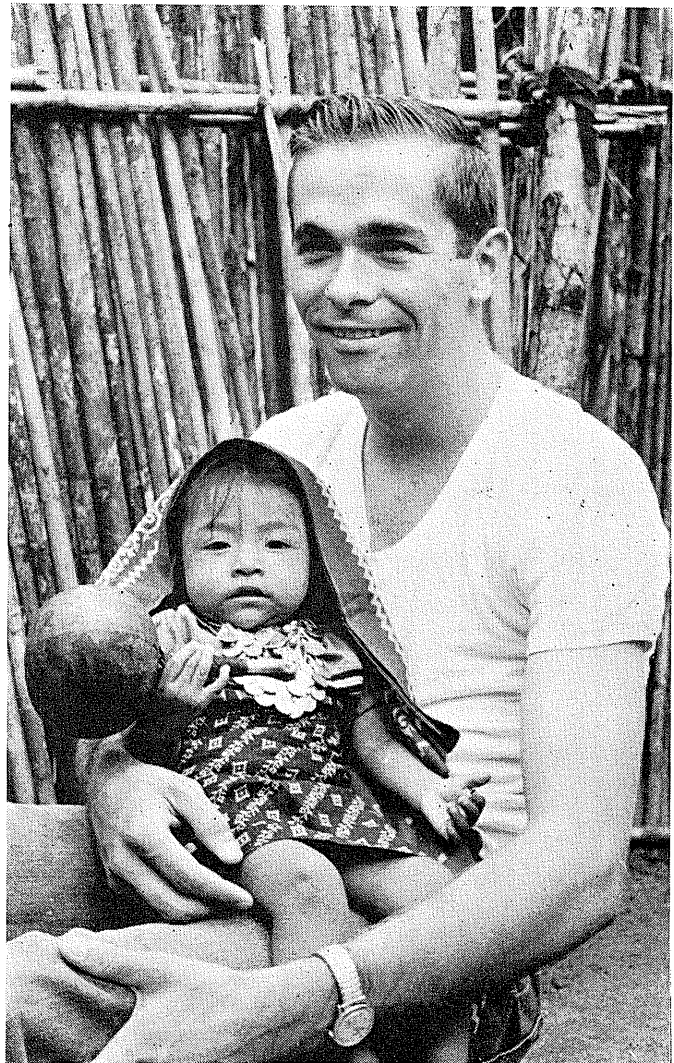
모든 시간을 바쳐 우리의 통역관으로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는 했어도, 우리는 몇 가족과, 서반아어를 할 줄 아는 젊은 가장 몇 사람과 교회공부를 하였으며, 잠재해 있는 발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장래는 극히 밝았으며,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위한 힘과 의지를 경합하고 있을 때, 인디안의 전통은 비극의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쿠나 사람들은 “인나” 혹은 “취화 사육제”라는 제전을 사춘기에 도달한 사람들의 축제로 신성하게 지켜왔습니다. 취화란 옥수수과 자당즙으로 만든 음료로서 수일동안 발효시켰다가 젊은 여자들이 어린이의 상태에서 성인으로 성장된 바를 축하하기 위하여 마시고는 하는 것입니다. 비록 “취화”가 지혜의 말씀에 위배는 되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교리의 가르침을 관심 있는 적은 무리나 개인에게



큐나인은 늘 미소를 짓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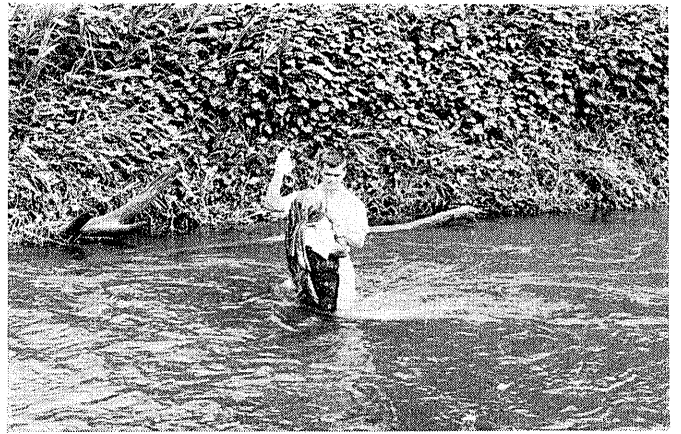
글쓴이 라인 엠. 라운드 장로와 큐나의 어린이.



조금씩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의 마음은 마을 전체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충동에 크게 뛰었습니다. 이러한 영감을 받고 우리는 의회소에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전하는 얘기를 거절하리라는 내



어장. 싼 블라스의 여인이 아자수 열매로 생선을 바꾸고 있다. 생선은 그들 식탁의 주인이다.



조지 에이. 로빈슨 장로가 칼티투폴 근처의 강에서 쿠나의 여인을 침례하고 있다.

용을 잘 알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동반자나, 나나, 모두 쿠나 말을 유창하게 못했지만, 나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한 시간 이상을 분명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 자리에 함께하셨지만, 그 섬 지도자들은 그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마을로부터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한 만반의 차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얘기는 그들에게 그들의 성스러운 옛 전통을 버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종교를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두 명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말한 지혜의 말씀의 교리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섬을 떠나라는 최후의 통첩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택할 길은 오직 한 길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그들은 우리를 회의소로 불러내어 우리가 뜻을 돌리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우리의 반대로 사힐라는 다음날 오후까지 이 섬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섬사람들과 사랑이 점차로 깊어져가고 있었던 우리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슬픈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지도급 족장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그러 했습니다.

쿠나의 “사힐라”라 불리우는 족장. 사살디 무라투푸섬 태생인 그의 이름은 마니비닉디규 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재도구의 일부를 팔고, 일부로 짐을 꾸린 후, 그 섬을 떠나 올 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왜 그들의 좋은 친구들이 떠나고 있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눈물자국이 있는 볼을 한채 슬프고 섭섭한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시무룩한 기분에 얼굴이 일그러졌고, 신앙이 홀룡했던 부인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작은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와 악수를 하도록 했을 때 우리의 눈에도 쓰디쓴 눈물이 가득했었으며, 이 눈물은 우스투푸를 향하여 멀리 떠나왔을 때까지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작은 산호초 섬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아 요즈음 그곳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지도자를 개선하겠으니 장로들이 되돌아 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희망은, 이 섬이 다시 복음을 받아 들여 싼 블라스 해안의 모든 섬들에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특별한 이유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셨으며, 이제 그의 목적하는 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그의 왕국을 고수하려고 발버둥치는 한,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노력은 이제까지 실패하였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가질 문제점은 사탄이 그가 걷는 길 앞에 닥친 험산 준령에 비하여 개미의 언덕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의 실망과 고충을 들으시고 브레윌튼 선교부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사탄이나 다른 어떤 힘도 우리가 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고난은 번장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이후로, 그의 말씀은 모든 것에서 증명이 되어져 왔습니다. 주님은 쿠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들을 위한 “레이맨 민족의 시대”는 도래한 것입니다.

바다 갈매기



기념비

물론 개척단의 전위대에게도 탈출의 끝 날은 왔다. 그들의 지도자 브리감 영 대관장과 그의 동료들이 그의 가족을 데리러 그 해 가을 동부로 떠나 아직 렉키산 계곡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다. 1848년 늦은 봄 대 솔트 레이크 시에는 400여채의 통나무와 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올드 힐트”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오전 에이커 이상의 개간한 땅이 있었다. 그때 계곡에 정착한 1,700여명의 사람들은 “사막에 장미꽃을 피게하자”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 하고 있었다.

어떤 날 언덕이 있는 방향으로부터 메뚜기 떼가 하늘을 검게 덮고 움직이는 명석 처럼 몰려왔다. 이 무리가 가까이 왔을 때 성도들은 암담함과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모두 들판으로 나왔다. 물을 끼얹고, 불도 살라 보고, 몽둥이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 봤지만 허사였다. 지난 해에 들판을 건너 가져온 양곡은 바닥이 났다. 또한 그들은 다른 수천 명의 성도들이 대 솔트 레이크 시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지금 들판에서 자라고 있거나 헛되어 상실되고 있는 곡식에 달려 있었다.

들판에 머물러 있던 몇몇 지도자들은 문제의 사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화더 스미스”는 그의 제이보좌인 존 영에게 다음 같이 말했다. “당신은 급히 브리감 형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말도록 얘기하여야 하겠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면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아버지 이자 솔트 레이크 스테이크의 부장인 존 스미스는 잠깐동안 생각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존 영 형제!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는 이곳에서 굶어 죽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남너노소는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맘 속에 있던 기도를 드렸다. 갑자기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 이것도 역시 해로운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쳐다 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바다 갈매기들이었다. 갈매기 떼가 들판에 내려앉자 마자, 눈이 좋은 사람들은 갈매기들이 곡식 위에서가 아니라 메뚜기 위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있

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배가 부름대로 먹고난 갈매기들은 어테로 날아가서 내 빨고는, 또 와서 들판에 깔린 메뚜기들을 더 쪼아먹는 것이었다.

이것이 곡식을 구조한 경위였다.

이 현대의 기적이 일어났던 날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단지 어떤 역사가는 1848년 5월에, 어떤 사람은 6월이라고 말하는가하면, 혹자는 5월 6월에 걸쳐서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1848년 6월에 솔트 레이크 스테이크의 부장단은 브리감 영 대관장과 12사도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말하기를

“...봄에 심은 곡식이 무척 많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자라고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밀과 옥수수를 무척 망쳐놓아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바다 갈매기 떼가 호수로부터 와서 메뚜기 떼를 전부 잡아 먹어버리고 갔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 역사 1848년 6월 9일)

* * * * *

이리하여 바다 갈매기는 유타 주의 주조(州鳥)가 되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손자인 마흔리 엠. 영의 작품인 바다 갈매기 기념비는 1913년 10월 1일 신진광장에서 제막되었다. 무게가 20톤이나 되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기념비는 분수와 작은 연못으로 둘러 쌓여져 있다. 여기에 15휘트 높이의 둥근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는 화강암으로 된 지구, 또 그 위에는 500파운드의 무게와 8휘트 길이의 날개를 가진 청동 받침의 두 마리의 바다 갈매기가 놓여져 있다.

기념비 기초의 삼면에는 바다 갈매기가 놓여져 있다. 거기에는 바다 갈매기와 귀뚜라미의 얘기가 간명하게 조각되어져 있다. 동쪽 판에는 개척자들의 도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남쪽 판은 메뚜기의 침해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데, 비. 에이취. 로버트는 이렇게 기술했다. “정착자와 침입자와의 싸움은 끝났다. 그는 싸우기 위해서 그의 힘과 재능을 모두 소모해 버렸다. 그는 기진맥진해졌다. —당신은 푹 수구린 그의 머리와, 삼을 떨어트린 두 손이 기운없이 매달려 있는 등과, 희망없이 땅을 향하여 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은 그를 엄습하여 냉소하고 있다. 이 판의 여자와 그 모습은 다르다. 그녀는 손에 어린애를 안았다. 그 어린애를 통하여 그녀는 미래에 앞으로 올 남너들의 생애의 신호인 맥박을 느낀다.”(교회약사 제삼권 354페이지.)

세계 서판은 개척자들의 첫번 째 수확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고, 비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바다 갈매기 기념비

물론 개척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기념으로 세움

메뚜기와 바다 갈매기는 우리의 유산이다. 이것은 말일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영원토록 빛 날 것이다.

<관리 감독단 페이지>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존 경

“웰링튼 공장님이라면, 틀림없이 저를 강제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의 아버지의 특별한 승락 없이는 이 문을 열어설 수 없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그가 문둥병 환자나 불구자를 대할 때나, 현명한 자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실 때—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을 깊이 존경하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여 조롱하고 저주하는 등의 시련을 당하실 때에도 그는 단 한 번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폭도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부르짖었을 때나, 온갖 괴로운 고통을 겪으며 끌고다 산으로 끌려 가실 때에도, 그의 생각은 어머니를 위한 걱정과,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셨을 뿐, 결코 횡포한 언사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젊은 남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남을 존경하는 좋은 성격,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젊은 사람들이 똑바로 평가하지 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만, 존엄과 성숙과 위대함을 나타내주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존경이란 우리의 매일 생활에 적용되는 미덕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몇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

아담의 시대로부터 모세의 때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부모님을 존경해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면서도 어머니의 안녕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진실한 여자나 남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어떤 영국 소년이 하루는 자기 아버지의 농장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들로 나갔습니다. 결코 아무도 농장 안에 들어 보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갑자기 사냥꾼들이 몰려와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그는 그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소년은 그들에게 자기는 아버지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면서 명령조로, “야! 너는 내가 누구인 줄 모르겠지만, 나는 웰링튼 공작이다. 나는 누구든지 나에게 불복종하는 것을 보아오지 못했어. 그러니 어서 이 문을 열어라.”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모자를 벗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웰링튼 공작님이라면, 틀림없이 저를 강제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의 아버지의 특별한 승락 없이는 이 문을 열어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공작은 그의 모자를 벗어 들고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불복의 명령에 두려워 하거나 아부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존경한다. 그와 같은 성품의 군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있다면 나는 불란서 뿐만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은 가장 숭고한 존경의 하나입니다. 젊은 남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빚지고 있으며,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만큼 우리는 훌륭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님들보다 우리의 존경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계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젊은이들이 좀 더 존경을 받았으면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 호소는 전혀 근거없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근본 원칙은 “존경은 존경을 낳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만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연로하여 머리가 백발이 되고 허리가 굽은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느날 저녁 아버지의 농장 목초밭으로부터 집으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부터 들에 나가

일을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때, 아버지가 그를 만나자 읍에까지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말하기를 “그때 나는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씻지 않고 배도 무척 고했습니다. 읍까지 거리는 2마일이나 되었으며 나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하루 온 종일 밭에 나가 일한 후에 또 심부름까지 시키시는 아버지가 미웠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어서,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던 것이 내 마음 속에서의 첫 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아버지 스스로가 가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뜻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가지고 있던 낫을 일꾼에게 주었습니다. ‘짬아 고맙다 나혼자 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몸이 무척 피곤한 것 같구나’ 하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읍으로 가는 길가에까지 나와 함께 걸어 나오신 아버지께서는 저의 한 손을 내 어깨에 얹으시며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얘야 너는 항상 나에게 훌륭한 아들이야, 짬아.’ 나는 급히 읍엘 다녀왔습니다. 그때 나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잔 일을 하지 않고 문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 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향해 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푹 수구리었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자리에 쓰러지셨으며, 마지막으로 당신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디만, 나의 아버지로부터 ‘너는 항상 착한 내 아들이야’라는 마지막 몇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년동안 나는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숭고하게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경

존경이란 흔히 “공중예의”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공중예의”가 일반화 되어야 할만큼 이르지 못한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존경과 사려의 형태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토마스 홀러는 “세상의 모든 문은 예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테니슨은 “위대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가 바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의란 진실한 남녀가 갖추어야 하는 존경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존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점에 언급해서 이. 에스. 말틴은 “자기 존중은 모든 훌륭한 태도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태도란 기율과, 선의와, 타인의 인권, 안녕, 기분 등의 존중을 표현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일거일동에서 존경심—존경심이 존경심을 가져오게 하는—을 가지고 예의 바르고 사려있게 행동하는가를 스스로 살피는 일은 아주 훌륭한 일

입니다. “예의보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법의 존경

법과 통치자에 대한 존경은 우리 신앙의 기본 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롱 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권능에 대한 존경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기 전에 권위에 대한 존경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 주님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그의 여행이 좌절되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다시 주님이 가라사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4~6)

여기에서 주님은 몇마디의 말씀으로 사울이 해야 될 바를 전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사울의 성격을 알고 계셨으며 후에 밝혀진 것처럼 사울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능을 이해 하고 존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교회의 권능에 대한 존경의 중요성을 사울에게 가르치기위해서 주님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잡아 가둘려고 했던 사람이며 후에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겸손한 관리 역원이된 아나니아에게 유식한 사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권위의 존중은 우리 교회 교리의 기본원리입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나니 이를 변경하지 아니 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어 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 이거나 다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1:38)

만약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숨은 뜻을 이해한다면 아론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와 지방부장 그리고 지부장을 존경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의 조언을 딸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얘기한대로 존경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무례한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여인의 사명

헤럴드 비. 리 장로 (12사도 정월회)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해 달라고 자매님들이 부탁해 왔습니다. 혹시 애기의 중심을 잃더라도 내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하여 제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텔레비죤과 라디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사노푸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아온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획득하였거나 부귀를 얻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하여 건강과 훌륭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잡지 22호)

자녀를 가르치자

부리감 영 대관장님은 1877년 그의 사망 꼭 6주 전에 교회에 보낸 서한 가운데서 그의 보좌인 존 떠블유. 영과 다니엘 에이취. 웰스에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중대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머지고 있는 여러가지 의무 가운데서 어린이들의 교육보다 더 우리의 깊은 사려와 계속적인 성의를 받쳐야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서 만약 그들을 적당히 가르치면 그 아이는 장래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제공하여—만약 매일이 아니면 여러날을 걸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주—그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어린애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의 행동과 말을 존중하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는 어린이들을 정기적으로 교회의 유년주일학교에 보내어야 하고, 진전한 정신과 교육을 터득하도록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그들이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원칙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68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어린이들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요구를 인용하면서 죠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모가 잘못하여 어린이들이 타락하고 진리로부터 돌아서면 그 죄는 부모들의 머리 위에 머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낙오됨은 부모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며 그들의 변절과 그릇됨도 동시에 부모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종말에 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후회를 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 왕국에서는 승영과 영광의 상태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의무에 태만하면 나의 자녀는 무지의 자녀가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뜻을 저버려서도 안 될 것이며 저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진실되고 훌륭한 신앙을 갖도록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없이는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98년 4월 대회에서)

어머니의 직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은 교리와 성약 제일편의 계시에서 밝혀 주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 적용되었을 때 복음의 회복이 가져다 주는 네가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1. 신앙이 땅에 증가되며……또한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성 1 : 21, 25)
2. 지혜를 구하였으매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교성 1 : 26)
3. 죄를 지었으매 회개하기 위하여 징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교성 1 : 27)
4. 겸손하였으매 강하게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 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교성 1 : 28)

이 긴급하고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복음교육에서 어머니의 직분은 대단히 큼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중요한 책임이 될만 한 것 몇가지를 제목만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십대 소년 소녀가 가질 수 있는 이기심의 절정의 상태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소년 소녀를 위하여 어머님께 호소합니다. 가정교육을 무시하거나 자유 방임의 불가능 상태에서 소년 소녀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충격을 줄 때라도 관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어떠한 충고나 조언도 필요없이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미 젊은이와 보조가 맞지 않는 늙은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이 아는 바를 적용해야 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의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는 해롭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의 절반은

영리하고 절반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케네)

어떤 대학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의젓하고 보기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젊은이들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북 영국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그가 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속에서 그는 요즘 부모님의 충고가 그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 충고는 마치 19년 동안이나 책상 위에 끼워 두었던 책과 같은 것이며 그는 지금에야 비로써 그 책을 뽑아 들고 처음으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당신의 충고를 안다고 생각하고 관련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도 부모님의 충고를 흘려 듣고 있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여러분의 조언이 책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이 꼭 필요할 때 꺼내어 읽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바를 다 끝낸 후에도 외부의 작용은 계속됩니다. 그와같은 힘이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어린 엘마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들은 부친의 위업을 파괴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엘마에게는 천사가 보내어 졌고 그를 쳐 쓰러지게 했습니다. 천사는 엘마의 정수리를 쳐 그를 밤 낮으로 사흘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엘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너의 부친이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네게 알릴 뜻으로 이곳에 왔음에, 주님의 종의 간구가 저의 신앙에 따라 성취되리로다.” (모사이야서 27 : 14)

이러한 일은 니파이에게도 일어나서 그의 완악한 형들이 그를 모반하려 할 때 천사는 그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악을 행함에는 재빠르나,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는 더디도다.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며,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 저가 천둥같은 소리로 말함에 마치 땅이 갈라질듯 진동하였느니라.” (니파이 일서 17 : 45)

아버지를 가장으로

어머니의 책임가운데 둘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를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느 유명한 판사가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한 인식과 존경을 태만하게 한 가정이 여러가지 문제에 처해 있다

고 판단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린 애들은 빨리 자라 정을 필요로하는 나이를 금방 넘기게 되지만,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모시는 방법은 아버지에게 정을 드리는 일입니다. 비록 가장이 될만한 가치가 없을 때라도 그렇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 때는 그에게 입맞추어 드리고 화를내시면 그대로 덮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대접을 해 드리되 결코 여러분이 그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드리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하거니와 늘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도록 하십시오. 부리감 영대 관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많은 훌륭한 여자가 남편으로 인하여 노여워하고 그것을 참기 위하여 때때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항상 여러분을 꼭 보살펴 드려야 할 만큼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활의 보호자가 되고, 친절히 다시 말해서 정당하게 대해 주거든 남편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나는 혹자가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한 것들과 여러가지 장애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는 사실과 만약 어느 아내가 이 세상에서 그의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세상에서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이나 해의 영광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은 순결하고 완전하여 육체로도 완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남녀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 있는 천사들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설교집 제 10권 24페이지)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이 품위 있는 남편이 되도록 가능한 협조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휘장 뒤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도우시리라는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신권을 소중히 여기도록

어머니의 또 다른 역할의 하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신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초기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영생에서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신권을 존중하고 중요시 하지 않을 때 당신의 가족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남편 없이는 해의 영광의 가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족기도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을 때라도 늘 갖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맡은 임무에 충실한지, 또 그가 신권회에 참석하는지, 가정복음 교육의 부름에 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스럽고 참을성 있게 언젠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함께 신전에 갈 수 있도록 남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신권의 협조를 구함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극복할 수 없을 만 한 문제가 제시될 때 신권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부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너무 가까워, 혹은 그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라는 등 그들이 신뢰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단지 변명에 불과할런지 모릅니다. 지부장은 모든 보조 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지부 안의 제반사를 처리할 수 있는 신권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싶으면 지부장을 통해 지방부장과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결혼 주례를 해 준 한 아름다운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나는 여기에 하나의 실패한 신전 결혼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곧 여러가지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곤경을 자아내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활동적이어서 집회때마다 참석하고, 기도하며, 십일조도 정확하게 바쳤고, 신전에도 정기적으로 들렀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서로 사랑했고, 또 결혼을 갈망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어린애를 갖게 되었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일에 우리의 엄청난 행복을 쏟으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노력한지 거의 일년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와같은 조건 가운데서 함께 살 수 없음을 알고 친구의 한 사람인 지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서로 얘기를 교환해 보았으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도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어려운 때를 가졌었다는 믿기에 힘든 격려의 말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즉,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왜 당신들은 할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부장의 사무실을 나섰을 때는 양자택일의 결정적 순간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내려 갈 수 있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지만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째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아무튼 우리는 새출발 하여 계속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부장의 충고를 따랐기 때문에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의 밤

나는 한 어머니에게 가정에서 가족의 밤을 가져보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했던 바 그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한 병을 앓았습니다. 헛

된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인식했습니다. 자녀를 보살펴 주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서 앉고 있을 때——하나님 아버지의 가호를 제하고는——내가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위해 할 일과 영향력은 끝이 났구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올 순간 순간들, 그리고 다음주, 다음달, 다음해의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있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나에게 허락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밤이 되면 책도 읽어주고, 애기도 해주곤 했습니다. 가끔 빠지거나 짧게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보통 일주일 가운데 5일저녁을 한 시간씩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그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들의에도 나는 그들에게 어린이용 물문경을 거의 다 읽어주었습니다. 여덟살 먹은 애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이러한 기록들을 받아 쓴 예언자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들었을 때 혹은 다섯살 먹은 아들이 니파이가 그의 형 레이먼과 레뮤엘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 훌륭한 신앙을 지닌채 광야로 무사히 도망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모양을 보고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의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고 기회만 있으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며, 우리 가정의 융합은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의 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곳

지금까지 나는 몇개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을 보다 참되게 알고 있는 바 대로 정의한다면, 가정이란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어머니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 옛날 애국자들이 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사할만한 큰 영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요 단지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고쳐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이 주어야 할 것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류의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얼마 안되어 가정을 떠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이러한 견고한 토대 위에서 수 많은 다른 어머니에게도 고귀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쌓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감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일학교 페이지

경전을 상고하자

로웰 엘. 베니온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 5:39)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람들에게 대한 비슷한 성격의 조언에 의하여 보충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 후서 3:14~17)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교사들이 학생을 경전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전이야말로 물론 교회에 관하여 출판된 유일의 책이며, 이 교회 교리의 확실한 근거를 입증해 주는 재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책들도 이 교회의 교리 및 표준 경전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이 책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쓰여 졌는데—위대한 저자 몇을 예로들어 보면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엘마, 물론, 모로나이 그리고 요셉 스미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리와 시간의 직접성, 확실성, 권위 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 가운데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원칙을 풍부하게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전의 말씀은 살아 생동하며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즉 여러 위대한 사람들, 생생하고 극적인 삽화, 이야기, 비유, 사진, 노래, 격언, 설교, 역사적 기사, 정사, 전쟁, 평화, 시기, 사랑, 음모, 고결한 이상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 유형의 강함과 나약함이 그려져 있으며, 대부분 영감을 주는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잔치의 방관자, 청취자, 참석자가 된 이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전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않으며 결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느 사람에게나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 연구에 도움이 될 몇가지 제안을 뽑아 보았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1) 비싸지 않은 표준경전의 책을 구입하여, 한 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소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반에서 한 권씩을 사서 지부 도서실에 비치해 두었다가 공과 공부를 위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십시오.

(2) 베드로의 생애에 대하여 공부할 때, 교사가 그것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것보다 베드로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신약성서 가운데서 중요한 몇장을 선택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 마 16, 요 13, 눅 22, 24, 행 2, 3, 10 등) 각각 연구과제를 할당하기 전에, 반에 참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각 사람에게 한장씩 읽게 하며 그 읽은 것으로부터 베드로의 성격을 분석하도록 하십시오. 그 반에 참석한 학생들의 보고에 따라 베드로의 성격을 칠판에 나열하고 성경구절을 연구하게 하며, 질문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여, 학생들이 읽은 후 답변과 결론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을 할당하십시오. 학생들이 연구

할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때 공부하는 데 더욱 열을 낼 것입니다.

(3) 경전에 있는 많은 성경구절들이 전체공과를 설명하거나 혹은 서론이나 결론을 위해서 인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 : 36)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 : 24)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 : 21)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3 : 6)

학생들에게는 선택된 성경구절이 뜻하고 있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상상적이며 독창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들의 기분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4) 간단한 낱말도 학생들에게 큰 뜻을 제시해 줍니다. 일

일 공과시간을 시작할 때는 경전에서 발견되는 용어의 정의나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완전해 가깝도록 준비하여 답변하는데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사랑, 신앙, 구원, 영생, 공포 등과 같은 단어의 뜻을 토론해야 합니다. 일례를 들면 “영원한”이란 말을 경전에서는 양적, 질적 두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시작도 끝도 (양)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또 다른 곳, 즉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은 곳에서는 영원한 이란 말은 “하나님처럼”(질)이란 뜻입니다.

전체의 그리고 유익한 공과는 경전에서 사용된 이 한 단어의 분석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훌륭히 끝낼 수 있습니다.

(5) 학생 스스로가 성경구절을 외우도록 하게 하십시오. 만약 한 반의 학생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그들이 암기한 것 가운데서 참 뜻을 발견했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구절은 결코 길거나 난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그리고 진지한 느낌으로 한 반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8 월분 주일학교 성구암송 및 이분반 말씀

야 곱 반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복음 3장 23절)

【참고】

마태복음 3장 13~17절 로마서 6장 3~6절

요 한 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참고】

사도행전 3장 19~21절 요한복음 3장

11일 로마서 8장 16~17절 (성령)

신앙개조 제 9 조

18일 중앙 지방부 지방대회

남부 지방부 신신기 5장 17절 (제 6 계명)

로마서 12장 9~12절 (사랑)

25일 남부 지방부 지방대회

중앙 지방부 신명기 5장 17절 (제 6 계명)

로마서 12장 9~12절 (사랑)

리하이의 돌



(스텔라 5)

리차드 오. 코완

색인표

1. 제임스 이. 탈메지의 신앙 개조 16판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25년 발간, 226페이지.
2. 1961년 12월호 인스트럭터 410페이지를 보시오.
3. 엠. 웰스 제크만의 “스텔라 5” 브리감 영 대학교 고고학회 발간. 1958년판 23페이지.
4. 동 37페이지
5. 동 37페이지
6. 동 40페이지
7. 동 58페이지
8. 동 58페이지

리하이와 그의 일행이 홍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레뮤엘 계곡에 야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가장 흥미로운 시현과 꿈을 경험했다.

그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를 보았으며, 그 옆에는 깊은 물이 있고 나무쪽으로 이르는 길을 따라 빨려진 쇠막대도 보았다. (니파이 일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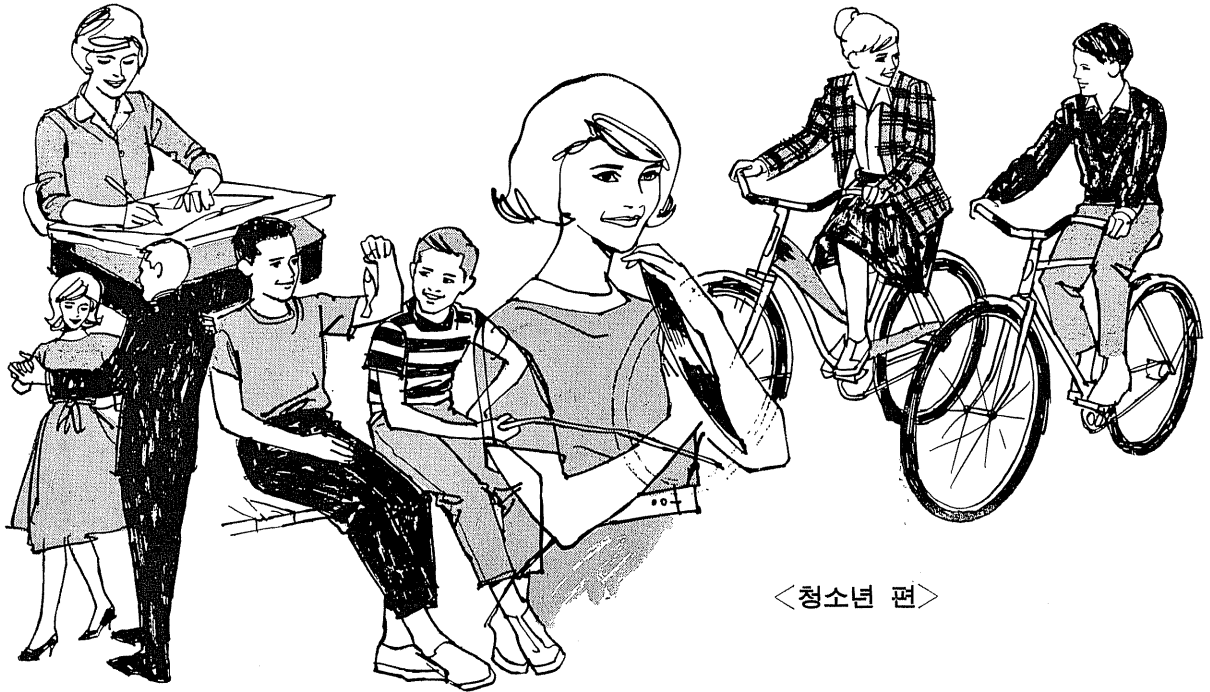
그 뒤에는 크고 높은 건물들이 있었다.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는 잇달아 일어나는 시현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그는 그의 부친이 보았던 시현의 뜻을 더욱 잘 깨달았다. (니파이 일서 11:15) 시현에서 본 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것이며, 그 쇠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때, 복음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그의 말씀을 상징한 것이었다. 그런 건물은 자만심을 뜻하였다.

그는 꿈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다.

어떤 무리는 (니파이 일서 8:21~23) 영적인 목적을 가졌었으나, 신앙가운데서 튼튼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의 안개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은 또 다른 무리는 (니파이 일서 8:24~28)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세속적인 관심사로 끝까지 참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리하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생의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서는 신앙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교성 14:7) 이 특별한 계시의 경로에 관하여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시현과 꿈은 어느 신권의 경륜시대에서든지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¹

고대 미대륙에는 생명의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꿈과 시현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고증이 있다. 1941년에 고고학자들은 멕시코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화파스의 이자파에서 스텔라 곧 돌로된 기념비를 발견하였다. 그 기념비의 크기는 키가 10피트, 넓이가 5피트, 두께가 2피트가 된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스텔라 5”라고 명명하고, 1943년에 처음으로 이것에 관한 책자를 출판하였다. 브리감 영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엠. 웰스 제이크맨 박사는 리하이의 경험의 기록과 이 돌에 새겨진 내용과의 사이에서 발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이 유사성에 대하여 몇권의 책과 논문에서 설명을 하였다.² 1958년 브리감 영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은 이 돌로된 기념비를 주조해서 오늘날 스텔라 5와 똑같은 크기의 모형이 고고학과에 전시되고 있다.

제이크 맨 박사가 그린 그림으로부터 작성된 도표가 스텔라에 새겨진 그림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1) 중앙 부분의 그림이 나무이고, 그 주위에는 여섯 사람의 모양이 있다.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지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2) 그의 뒤에 앉아 있는 노인은 머리 위로 악어를 상징한 새겨진 표상을 들고 있는데, 이는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고대 파테말라의 첫 조상으로 생각하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 육지에 처음으로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았던 “대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새긴 부상이었다.³ 더욱이 넓은 턱은 이 부상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즉 히브리인의 이름으로서 “리하이”는 턱, 턱뼈, 혹은 볼등으로 정의 된다. (3) 이 노인 뒤에는 여자의 모습도 보인다.⁴ 그녀의 정교한 머리쓰개는 옛날 사람들의 왕의 존엄성을 대변해 주고 있어 이것은 새라이아의 이름이 “여호와와 아들”이라는 뜻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⁵ 다른 (4) 큰 몸집을 앳고 수염이 약간 난 사람은 젊은이의 모습이며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 꿈의 설명은 니파이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물론경은 “그가 몸집은 장대하였어도 상당히 어렸다”고 얘기해 준다. 그 조각물에서 그의 머리쓰개는 에집트 사람들의 곡물의 신인 네파이와 거의 비슷하다.⁶ 그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이며 (5) 그는 물론경에 나오는 썸 같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두 사람들은 (6, 7) 노인과 좀 더 가까이 있어 아마도 가족의 연령 순을 나타내는 듯 싶고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등을 나무에 돌려대고 있어 나무가 표시하는 바를 거절하는 상징인것 같다.⁷ 레이먼과 레뮤엘의 대등한 비교는 분명하다. (8) 돌로된 원래의 조각물에서 가장 선명한 모양의 하나는 직선으로된 깊은 홈으로서 이것은 쇠막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각되어 진다.⁸



〈청소년 편〉

비극이나 운명이나

스펜서 더블유. 킴블 (12사도)

최근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은 소위 모든 비극의 원인은 주님에게 달려 있다고 탓하며, 또 어떤 참화가 일어나지 않나 싶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름으로의 소견을 이곳에 밝혀 긴장을 풀고 올바른 판단을 구하며, 자주 논의되나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문제의 해답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일 신문의 표제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43명 사망. 산정의 비극에서 생존자는 없음. 그런가 하면 수천명으로 구성된 합창대는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님은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한 어린애가 정신 장애를 갖고 태어 났습니다. 그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주님은 그로하여금 정신적 능력을 탈취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셨습니까?

바라옵건대 제가 이러한 질문을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해를 하고 공명공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결론은 제 스스로의 것이며, 이 결론의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과 비극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비행기가 산을 들이 받아서 거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을 산화시켜 버린 것은 주님이 하신 걸 까요, 아니면 기계의 고장이나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주님은 과연 그 비극을 방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방지하실 수 있었읍니다. 주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시고, 모든 사고를 방지하시며, 모든 비행기와 차를 운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노동과 노력과 질병과 사망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노동이나 실망, 유혹, 슬픔, 고뇌 등으로부터 보호하시겠습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법칙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조심과 의로움을 강제한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말살될 것이며 성장이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련과 성취해야 할 목표,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킬 슬픔을 주신데에는 주님으로의 목표와 지혜가 있는게 아닐까요? 우리의 인내심을 배우게 하는 병과 힘을 시험하는 유혹과 또 영생과 영광을 가능하게 하는 죽음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태초에 창조주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읍니다.

이에 사탄이 내게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저가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모세서 4:23)

또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녀는 죄 가운데 잉태되는 고로 저들이 자라기 시작하자 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나니, 저들이 선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도록 쓴 것을 맛 보느니라.

이리하여 저들이 선악을 구별할 힘을 갖게되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라. 내가 다른 율법과 계명을 주었노라.”(모세서 6 : 55~56)

“주님안에서 죽은” 사람들

주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는 죽음을 항상 저주나 비극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읍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교성 63 : 49) 생명이 지속되고 자유의지가 계속되며 참화라고 생각되는 죽음은 변장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벨본 제이. 벨러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읍니다.

“나는 여섯살 먹은 아들을 잃었읍니다.

그가 죽은 후에 나는 영의 세계에서 어른이 된 그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그의 뜻과 의지의 친교를 쟁취한 모습을 보았으며 때가오면 그와 모든 가치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집의 모든 축복과 인봉된 특권이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세등급의 영광, 벨본 제이. 벨러드)

만약 우리가 일찍 죽는 것이 참화나 재앙이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영의 세계의 빠른 관문이며, 종국의 구원과 승영의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한 상태라면 죽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에게 죽음에는 어떤 비극도 없으며, 죄 가운데서의 죽음에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제2차대전 때 죽은 젊은 학생의 장례식에서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물결에 휘말려 젊은 나이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채 영원 속에 밀려들었읍니다. 나는 그 장례식에서 이 의로운 젊은이는 분명코 불의에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영의 세계로 불러졌다고 말했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에 의한 “죽음의 속죄”라는 시헌에서 그는 이런 사실을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8년 10월 3일 그는 성경 가운데 엔티딜루비아 사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서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쓰여진 사실에 관하여 내가 꼼꼼히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는 죽음의 군대를 보았다.……이 굉장한 의의 군대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며 얘기하고 기다리는 동안……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는 회개의 조건 위에서 아담과 인간 개개인의 죄로부터 인류 속죄의 사실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동안 스스로를 더럽히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의 음성이 울리지 않았고, 주님의 존재와 얼굴을 목격한 옛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간증한 사실을 배척한 모반자들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또 생각에 잠겨있던 중 주님은 진리를 배척했던 불복종의 사람들과 사악한 사람들에게 가시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그의 군대를 조직하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 구세주는 영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 있는동안 그를 증언한 충실한 영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타락과 모반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친히 갈 수 없는 죽은 자들에게 속죄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의로운 사람들의 회중에 모였던 장하고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첫 조상 아담과 이브, 그 외에 신앙심이 훌륭했던 그녀의 여러 딸, 첫 순교자 아벨, 셋, 노아 위대한 대제사 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에스겔, 다니엘 이상과 또 이에외도 다른 니파이 민족 중에 있었던 여러 예언자가 있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나의 부친 이었던 하이럼 스미스, 브리감 영과 다른 선택된 영들도 함께 있었다. 나는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처음 선택된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음을 관찰하였노라. 이 경륜의 훌륭한 장로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회개와 속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의 수고를 계속함을 보았노라.”(조셉 에프. 스미스 저 복음교리 472~476페이지)

그렇다면 죽음이란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시헌으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환자가 고쳐지면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젊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가족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거나 변사를 당할 때 비관하는 것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없으면 비통해 합니다. 또 어떤자는 거룩한 사람들에 의한 엄숙한 병자 축복이나 계속하여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회복도 없는 것 같으면 신앙을 잃고 신랄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픈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보호를 받고, 사악한 자들은 멸망을 겪게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되고, 복음의 근본 원칙과 자유의지는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만약 기쁨과 평화와 보상이 선행한 자에게 곧 이뤄진다면 악이라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선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행이 옳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대한 즉각적인 보상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능력의 시험이나 개성의 발전, 능력의 성장, 자유의지가 없고 오직 사탄의 지배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편협한 이해에 따라 즉시로 응답된다면 고통이나 슬픔, 실망이나 죽음까지도 조금 혹은 전혀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없음은 곧 기쁨과 성공, 부활과 영생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의로운 것……죄악> <성스러운 것……비참한것>

<선……악> (니파이이서 2 : 11)

주님은 우리에게 만약 의식이 행해지고, 믿음이 굳건하며, 앓는 사람이 죽기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의식을 치르지 않고, 풍부한 신앙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또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말입니다.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만약 그들은 죽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퇴보하게 하는지, 또 무엇이 그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아십니다.

죽음——생의 경험의 일부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생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이 변화에 완전히 대비해 있지는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적당히 우리의 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처럼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앓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우리는 피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우리는 주님께 병을 고쳐주고, 고통을 적게 하며, 생명을 구해주고, 죽는 날을 연기해 달라는 등의 탄원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이란 그토록 놀랍고 무서운 것입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어렸을 때 데려가시어,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죄악, 그리고 사람의 시기를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에 살기에 너무나 순결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이라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제 받은 그를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므로 슬퍼하는 대신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자들과, 어려서 죽은 자들 사이에 단 하나의 차이점은, 한 쪽은 다른 쪽 보다 하늘 나라와 영원의 빛, 그리고 영광에서 오래 살았고 이 비참한 세상에서 먼저 해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 주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오사 옛것이 없어지고 만물이 새로워 질 때에 저들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다시는 죽지 아니 할 것이요, 거룩한 도시에서 주 앞에서 상속의 땅을 받으리라”

“주께서 오실 때 살아서 신앙을 간직한 자는 복이 있도

다. 그러나 인간은 그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느니라” (교성 63 : 49~50).

모든 사람이 든독한 신앙심을 보인다고 병 고침을 받거나 생명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또 교회의 장로를 둘 또는 그 이상 불러 기도하게 하며,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안수하게 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죽으면 이는 내 안에서 죽는 것이요, 살아나면 내 안에서 살아 나는 것이되리라.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 그리하여 죽은 자를 잃었음으로 눈물 흘리며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 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니라.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에게 화있을진저,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썸이니라. 거듭 말하거니와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 나온 줄로 믿고 또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병고침을 받으리라”(교성 42 : 44~48)

“만약 그가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면”이란 말은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제 자신이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나 육체의 오용, 불필요한 기회를 택하거나 위험에 스스로를 던지는 일, 사고, 병 등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어야 할 때” 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의 계시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종 리미탄 화이트가 시온을 위하여 계속하여 설교함은 나의 뜻이니라……그리하면 나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태우듯 저를 높이 태우리니……

그리하여 저가 일을 마칠 때에 나는 저를 내게로 영접 하리니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종 데이비드 패튼을 영접하듯 할 것이요, 또 나의 종 에드워드 패트리지와 아브라함의 우편에 앉아 있는 나의 늙은 종 요셉 스미스(일세)를 영접하듯 하리라. 저는 나의 것이매 축복받으며 거룩한 자가 되리라” (교성 124 : 18~19)

데이비드 패튼이 순교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이유로 죽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그는 다음 구절이 증명해 주듯 승영의 높은 영광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종 데이비드 패튼을 영접하듯 할 것이요”

앤티딜루비안 사람들에게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악인의 밭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

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욥기 22 : 15~17).

전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도서 3 : 1~2)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전도서 7 : 17).

우리는 모두 (혹은 완전히 성장하기전에) 죽기마련이며,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의 때를 무척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십 오세의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의 선조나 혹은 후계자들 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유대 왕은 죽을 때를 선고 받았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처럼 생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심히 통곡하였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들처럼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에 매달리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나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일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십 오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열왕기하 20 : 1, 3, 5, 6)

주님은 그의 계획을 약간 변경하시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하사 유대가 앗시리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었다. 또 아빈아다이도 그의 죽을 때가 오기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나를 다치지 말라, 너희가 내게 손을 뻗진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전하게 하신 말씀을 아직 다 전하지 아니하였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죽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나를 죽일 능력을 갖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모세서 13 : 3, 7)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은 보호되었으나, 사명이 끝나자 순교자로 죽었던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을 개종시킨 리하이와 니파이 그리고 힐라만의 아들들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 박해자들은 그들을 살해하려 하였지만, 그들은 마치 불로 둘러 쌓인 것처럼 보호되었다. 선교사들은 담대하게 말했다.

“너희가 손을 뻗쳐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

땅이 진동하고 감옥의 벽이 울리며 한 목소리가 들려 말하되”

“이 때에 어두운 구름 위에서 한 음성이 임하여 가로되……나의 종을 해치려하지 말지니라. (힐라만 5 : 26, 29)

구세주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오지 아니하였노라”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그는 제자에게, “내 때가 이르렀노라”(막 14 : 41)

히버 씨. 김볼은 주님으로부터 우리 운명에대한 그의 섭리를 보이시는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시험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는 예언자 요셉으로 하여금 주님께 여쭙어 보도록 졸라대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서 그가 명 받은 바를 행하게 하라. 만약 그에게 배도할 위험성이 보이면 나는 그를 내게로 데려 오리라”(올손 에프. 위드니에의한 히버 씨. 김볼의 생애)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에 따라 생활할 수도 없고, 어리석게 우리의 생명을 짧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확신하거나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을 짧게 할 수는 있지만, 길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나 미래의 어떤 점에 이르러 뒤를 돌아다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 생의 여러 사건들에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기쁨과 슬픔, 고통과 위안, 평안과 고생,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망 등을 가질 수 있는 경험과 육체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종말에는 죽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불구라도 육체를 갖기 원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루이건 일년 혹은 일세기라도 이 세상에 오는 기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죽든지 혹은 노쇠로 죽든지 간에 그리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불만이나 무리한 요구없이 생명이 주어지면, 조직하고 지배하도록 그 생명을 부여받으 이 세상에 오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의 생을 받아들여 그날을 값있게 영광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나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여, 생이란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할 때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기회요, 훌륭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영생의 영광이 도래되며 지식과 지혜, 신앙과 사업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과 후

후로렌스 에스. 자곱슨

(청녀 상향회 회장)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나기 전 부리감 영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두 소녀의 아버지였으며, 성경 독서가, 부지런한 유리장수, 칠장이, 가구상, 목수,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를 진실로 감동시킨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났으며, 그를 통하여 위대한 선교사요, 개척자이며, 사업가며, 그 세기의 종교적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테일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나기전 조금 알려진 정도의 감리교 전도사였으나, 예언자를 통하여 영감을 받은 그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설교자요, 편집인이며, 개척사업가가 되었으며, 존 테일러 역시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예언자를 만나기전 올손 프랫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입을 옷이나 먹을 빵을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일을 했고, 9년 동안이나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며 공부하던 19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대서양을 십육회나 횡단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수천 명의 사람을 개종시키는 등 스물 한 개의 선교부들도 왔습니다. 그는 종교적 또는 과학적인 논문을 썼으며, 학교를 설립하여 수학과 철학도 가르쳤고 개척사회도 건설했습니다.

1831년 9월경 올손 하이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26세의 작은 시골상점의 서기였으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영감과 힘을 얻고 1841년에는 돈이나 신임장 혹은 정치적인 도움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세계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방문했으며, 유대 사람들의 모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위에서 기도를 드려 팔레스타인을 봉납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나 세계가 아는 위대한 그 몇몇 사람에 속합니다만, 교회나, 사회, 혹은 세상적인 일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개인으로 보아 자신들의 노정에서 위대함을 성취한 사람들은 수 없이 많습니다.

상향회 이삭줍기 반에 참석하기 전 캐롤 앤더슨은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그 반의 선생님은 큰 아파트 상점의 광고부원이었습니다. 1930년대의 미국의 대 경제공황은 캐롤의 가정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교육을 받고는 싶었으나 일전 한 푼 없었고, 더우기 대학교에는 갈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이삭줍기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써 그녀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네가 나의 집을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해주면 너에게 광고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캐롤은 그 일을 했으며, 이삭줍기반의 교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캐롤은 한결음씩 광고부면에 두드러지게 되어 일반 상점의 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광고 지배인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삭줍기반 교사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년단 지도자를 만나기 전 12세의 빌 안드루스는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빌은 부끄러움을 잘 타고, 내성적이며, 무반응한 소년이었습니다. 상향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 소년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향회의 장미반 교사를 만나기전 14세의 샤리 제임스는 어떠한 소녀이었습니까? 그는 멋없이 떠들기만하고, 불친절하며, 이상한 성격의 우울한 소녀였습니다. 상향회

에 참석하고있는 그녀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상향회에 참석하기 전 제인 크라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제인은 사악한 세상에 버려진 소녀였습니다. 처음 그를 초대했던 동료들은 부도덕과 술취함, 그리고 마취제를 가까이 했습니다. 어느날 이 소녀는 캐나다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상향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나는 부도덕과 술취함, 마취제 등은 알지만 그 외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나?” 라는 태도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정해진 시간동안 새로운 생활로 이끌어 주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문화관의 찬란한 분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친구와 팔장을 끼고 무용도 했습니다.

제인은 개회찬송을 불렀고, 이 노래야말로 가장 경건하고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을때 그녀도 머리를 조아렸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과 같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몇마디 말을 침부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회중은 모두 일어서서 확실히 찬 목소리로 물론경 니파이 일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 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라고.

그 저녁에는 재미있는 음악과 우아한 무용 순서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훌륭하고 멋 있는 청년들이 제인에게 춤출 것을 청해왔습니다. 그 주위의 공기는 상쾌하였으며, 전등 불빛은 따스함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들은 적당한 복장을 하고 매력적이고 조화된 몸가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훌륭한 장소가 있었는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제인은 말했습니다.

상향회는 제인을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여 준 셈이 됩니다. 상향회는 바로 그녀가 처음 간증을 얻게 했던 곳입니다. 이 간증은 커지고 증대해 졌습니다. 더 많은 상향회 모임을 참석하고, 그 외 다른 집회에서도 선교사들과 같이 모여 수차에 걸쳐 금식하고 기도 함으로써,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향회에서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서 신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복음의 계획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네 명의 훌륭한 자녀를 두었습니다.

만약 제인이 상향회를 몰랐더라면 어떠한 곳에서 방황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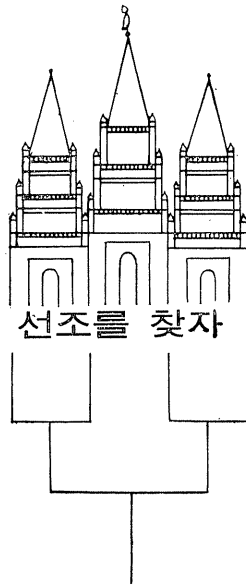
교회의 위대한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킨 요셉 스미스는 어떠한 힘을 가졌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활을 좋은 면으로 변화시켜주는 상향회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었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감이란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향회는 젊은 남녀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세상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축복하시리라는 확신과, 용기와, 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향회는 보dana은 생활이 되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모든 청소년 소녀들은 신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향회의 목적은 모든 소년 소녀가 복음의 계획을 배워서, 생활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갖고,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며, 주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길러 이 생이 준비해둔 기쁨과 축복을 받게 하는데 있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 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성 130 : 20~21)

(1968년도 상향회 주제봉독)



하나님의 자녀

—가족 기록서 작성 요령—

우리는 경전에서 조상과 혈통의 내력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많다.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의 후손임이 밝혀진다. (눅 3: 23~28)

우리는 가계도의 기능과 가계도로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찾아 낼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위의 성경구절은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조상의 가족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과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기 위하여 주님의 집에서 의식을 행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의 이름을 찾아 모으는 일을 돕고 협조하기 위하여 수년간 생각해서 만든 문서를 “가족 기록서”라고 한다.

1924년부터 발전되어온 이 형식은 몇번의 변경을 거친 다음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용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족은 승영의 단위요, 가정 생활은 곧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점에 있다.

이 용지 하나로서 가족 모두를 위하여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 또한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자녀를 부모에게 연결해 주는 인봉이 행하여졌는가 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

다. 가족을 함께 모으고 영원히 연합하게 하는 것이 인봉의식이다. 틀림없이 그 사업이 확장되면 주님은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은 빛과 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가족 기록서는 그 사용 방법이 바뀌고 혹은 때가 오면 완전히 폐지될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가족을 한 단위로 표시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종이와 잉크가 그 사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의 뜻이니라”(모세서 1: 39) 그리고 그는 그가 계획한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을 이끄실지 모른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말씀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기록에 적혀져 있지 않은 자기 조상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하여 그 사업이 실현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할런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브리감 영의 설교집 1961년판 409페이지) 즉 이 사업은 가족 기록서에 의하여는 완성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는 우리의 편집보다 선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충만한 승영을 얻고저 한다면 우리에게

세가지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다.

(1) 침례 (2) 신전 엔다우먼트 (3) 인봉. 인봉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인봉되는 것을 포함한다. 아마도 이 가족 기록서를 사용하는 첫단계는 지금 곧 가족을 위한 기록을 작성하는 것일 것이다. 한 사람이 그 기록부에서 필요로하는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과 그의 이름을 적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의 이름과, 설명을 적을때 지나치게 어려워서는 안된다. 가족 기록서 작성 방법에 익숙해 질 때쯤 되면 가족단위는 새로운 규모로 붙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기록이 완성되고 정정될 것같이 보여지자마자 또 그와 비슷하게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완성해야 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인쪽이나 남편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의 완전한 가족단위가 기록된 기록을 우리 앞에 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조상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정확히 알아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노력해서 기록을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족 기록서를 작성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하고 기록에 기재되는 것이 정확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능한한 근본 자료를 찾도록 해야 한다. 가족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되 공식적인 가족 기록에 옮겨쓰기 전에 그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주 주의할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의 근거”라 쓰여 있는 것으로 장의 맨 밑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료의 출처를 기록해야 한다. 그 내용은 앞으로 계보에 관한 것을 조사할 때 참으로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조사할 결과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었다고 기록 되어야 한다. 만약 앞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기록이며, 이 일을 계속해서 여러해 하다 보면 문서로된 자료가, 필요한 당신의 자료를 얻는데에 대단히 긴요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았던 자료를 계속 조사한다면 이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 근거”를 위하여 마련된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바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열고 각자가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그 기록을 보여주어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며, 모든 인류의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실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된 기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가족 기록서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관한 것을 어떻게 다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가족들이 만들어 낸 기록을 모두 정리하고 싶을때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남편의 성에 따라 모든 이름들을 가나다 순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아주 짧은 시간안에 필요한 기록을 찾아내는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된다. 이 기록을 정리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왔고 혹자는 자기 스스로 기록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교회는 그들의 계획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자기들의 것을 내세운 사람도 없었다.

현재 가족 기록서는 신전사업의 진행을 위해 계보 위원회에서 정한 유일한 양식이다. 그 이유는 다른 기록서는 더 좋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계보 위원회의 기록 담당자들이 기록을 받고 검토할 때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보다 좋은 방법으로 바뀔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통일된 기록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양식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 만약 아무런 형태의 양식이나 다 사용될 수 있다면 그 형태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보관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기록은 훗날에 이 기록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는 한 어느 것이나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께 강조 드린다. 이 사업은 옛날 예언자들이 시현으로 보고 기다리며 자기들도 그 일을 할수 있기를 원하던 사업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 : 39~40)고 하였다.”

<선교부장 멧세지>

한국 성도에게 남기고 가는 말

선교부장 배 일 문
부 인 배 선 혜



<지난 6월 세계 대학 총장회의 때에 박 대통령 내
외분과 환담하는 선교부장 부처>

이제 여로의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힘에 겨웠던 선교사의 나날이 끝나는 지금입니다. 저에게 생명의 빛을 준, 그리고 저의 귀환을 보고해야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쟁기에서 손을 떼고—물론 소금 기둥이 되는 두려움은 없읍니다만—귀를 돌아 보아야 할 순간입니다.

가슴자는 반 반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한 일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로를 꼼꼼히 뜯어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닌, 그렇다고 실패도 아닌 종결인가 봅니다. 그러나 제 앞에는 적어도 살지 않으면 안될 한 시간, 하루가 있고, 제가 이루지 않으면 안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흘려간 삼년은 곧 봄이요, 걸우어 드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허지만, “여름은 가고 추수가 끝났으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한 시간에 목적지에 이르러 얻은 것, 그것은 다름아닌 미래를 가슴하는,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눈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에는 경멸도, 집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배운 경험은 귀하고 귀합니다. 과거는 서막에 불과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삼 년동안, 저는 비의 애무로 파진 웅덩이에서 처럼, 여러분의 마르지 않는 마음과 정신을 마음껏 마셔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활의 맥박과 형태를 느린 속도지만 절감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인내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두터운 우의를 보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어디서 찾을 수 없으리라 믿읍니다. 지식을 사랑하고, 노래로 꽃을 피우며, 깊은 묵상의 여유도 소유한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의 영혼을 살찌고 고조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모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 성도 여러분은 아직 손이 안간 수정과도 같습니다. 불안정한 생활의 연속의 멧가로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광에 가득찬, 그리고 확실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 뒹이고 있는, 그리하여 언젠가는 완전하게 될 수정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제가 속한 땅입니다. 부르는 사람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라 하실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날, 한국의 여러 훌륭한 형제, 자매는 그 대열에 끼일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배 일문”이라고 불러 주시고, 부름받은 저는 얼굴을 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 * *

사랑하는 말일성도 여러분, 이 짧은 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기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년전 8월, 어느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을 크게 불어넣어 주어, 그들이 계속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성도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켜서, 그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년이 다간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제가 오히려 한국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왔고, 둘째 저의 간증은 놀람도록 커졌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셋째는 행복한 가정은 부유하고 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만들고 지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 가족을 위하여 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주신 율법과 그들의 율법 순종 여하에 따라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보다 높은 율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겠기 때문에,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말일성도 모두가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비록 좁은 길을 가고는 있지만 늘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29년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리가 번역을 시작했을 때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오늘 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이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만일 너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착실히 수행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천국을 상속 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6 : 34~37)

안에서 일어나는 일

스터링 더블유. 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고 있는데, 검은색 호두 한개가 발에 밟혔습니다. 나는 그것을 직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손에 집어든 호두를 생명의 상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호두는 돌처럼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껍질을 깨고 그 안을 들여다 본다면, 아마도 돌처럼 단단한 부분의 그물같은 조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양쪽 미궁 사이에서는 큰 힘의 물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열매를 적당한 환경하의 땅에 심는다면, 열은 그 열매의 내부로부터 썩어 나갑니다. 우리는 호두의 외부에 열을 가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다소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단 열이 호두나 인간의 내부에서 작용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호두의 경우, 돌처럼 단단한 껍질을 마치 종이장처럼 깨뜨리는 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작은 태양을 향하여 그의 중요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뻗어 올라갈 것입니다. 이 호두는 주변의 흙과 공기와 수분에서 받아들여, 나무와 잎과 꽃과 향기, 그리고 처음 하나에 비교하여 수백만에 달하는 열매를 맺는 큰 호두나무가 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선물을 호두에게만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력의 신성과 그 능력의 가능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처럼 되기에 필요한 요소를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향한 우리들의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